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윤리학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실천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20세기 중반에 논리 실증주의의 영향을 받아 도덕 언어의 논리적 명료화에 주력하는 새로운 윤리학이 등장하였다. 당시 윤리학은 도덕 판단이 단지 감정의 표현이나 명령일 뿐이므로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나는 이러한 윤리학이 ㉠고 생각한다.

- ① 도덕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규범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 ② 도덕적 추론에 대한 가치중립적 분석의 중요성을 간과하였다
- ③ 도덕적 풍습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 ④ 도덕 언어의 분석보다 도덕 문제의 해결이 중요함을 간과하였다
- ⑤ 도덕적 지식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탐구의 필요성을 간과하였다

2.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임상 시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동의 없이 임상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을: 찬성합니다. 다만 어린이는 사고 능력이 부족해서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자발적 동의가 불가능하므로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갑: 아닙니다. 어린이의 경우 부모의 대리 동의를 통해 임상 시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난치병 아동 환자를 위한 신약 개발도 가능해집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임상 시험에서는 피험자 자신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대리 동의는 단지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① 임상 시험에서 부모의 대리 동의를 인정해야 하는가?
- ② 난치병 치료제 개발은 반드시 임상 시험을 거쳐야 하는가?
- ③ 임상 시험은 사회적 효용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하는가?
- ④ 개인적 보상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임상 시험도 정당화될 수 있는가?
- ⑤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에 대한 동의 절차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가?

3.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인류는 지구 상에 계속 존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의 전환이 요청된다. 전통적 윤리는 인간적 삶의 전 지구적 조건과 종(種)의 먼 미래와 실존을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자연에 대한 책임, 미래 지향적 책임, 미래 세대의 삶의 조건에 대한 책임까지 숙고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은 단순히 상호적 권리와 의무로만 설명될 수 없다. 우리에게 요청되는 책임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책임처럼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책임이다.

- ① 인간과 자연은 공존을 위해 서로를 책임져야 하는가?
- ② 책임의 대상과 범위에 미래 세대도 포함시켜야 하는가?
- ③ 인류의 존속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하는가?
- ④ 인간은 예견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는가?
- ⑤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책임져야 하는 당위로 연결되어야 하는가?

4.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는데, 어찌 그것을 근심하겠는가? 만물은 하나이나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신기하다 하고 추악한 것을 썩어 냄새난다고 한다. 썩어 냄새나는 것이 신기한 것이 되고 신기한 것이 다시 썩어 냄새나는 것이 되는 법이다.
을: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귀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으며, 삶도 아직 알지 못하거늘 어떻게 죽음을 알 수 있겠는가? 백성이 의롭게 되는 일에 전력을 다하고, 귀신을 공경하되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움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갑: 삶과 죽음은 계속 반복되므로 분별되어야 한다.
- ② 갑: 삶과 죽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 ③ 을: 현실적 삶을 긍정하고 제사 의례를 근절해야 한다.
- ④ 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의로움에 힘써야 한다.
- ⑤ 갑, 을: 현세에서의 도덕적 실천이 내세에서의 삶을 결정한다.

5. 갑, 을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갑: 성은 ‘최대한의 책임과 최소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은 그것의 자연적 결과인 출산을 통해 가정에서의 안정된 자녀 양육으로 이어져야만 한다. 성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출산에 대한 책임과 양육의 안정성에 있다.
을: 성은 ‘최소한의 책임과 최대한의 성적 자유’를 지향해야 한다. 성에 관한 결정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인의 자유의사에 근거해야 한다. 따라서 강제와 무지, 기만에 의해 이루어진 성은 정당화될 수 없다.

- ① 갑: 성은 종족 보존이라는 생식적 가치를 중시해야 한다.
- ② 갑: 성은 혼인 관계 내에서만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 ③ 을: 성은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 선택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 ④ 을: 성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정당화될 수 있다.
- ⑤ 갑, 을: 성은 행위의 결과와는 무관한 개인 간 합의의 문제이다.

6.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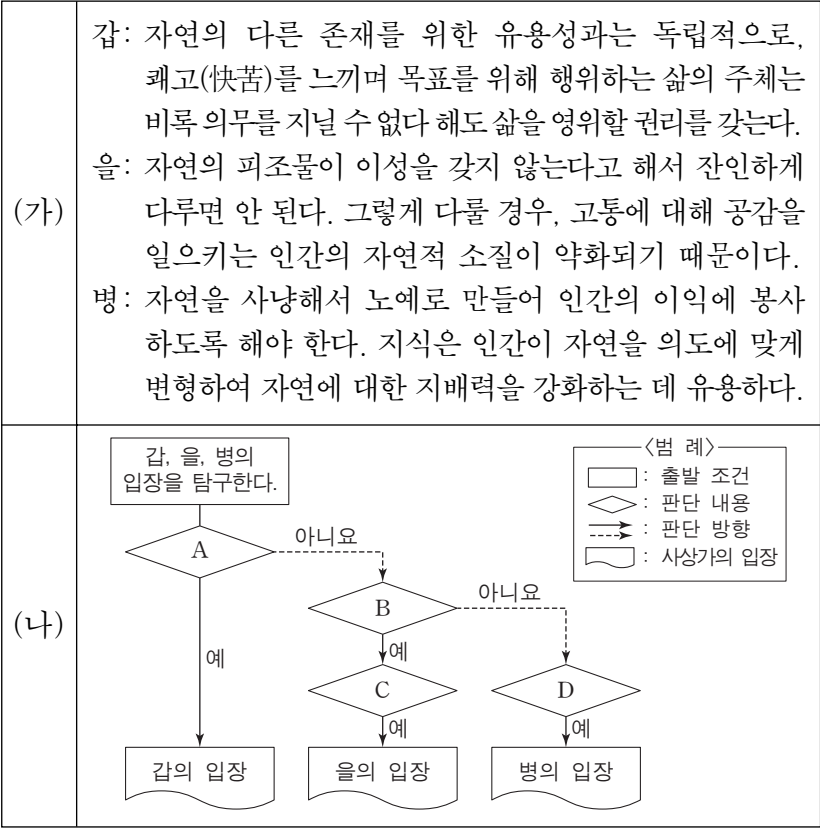
갑: 장발장은 전과자 신분을 숨기고 시장이 되었어. 하지만 정보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잊거나 지우고 싶은 정보가 인터넷에 남아 있어서 타인이 볼 수 있지. 따라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잊힐 권리’를 보장해야 해.
 을: 장발장이 아무리 시민을 위해 봉사했다 하더라도 그를 시장으로 뽑을 때 사람들이 그의 과거를 알아야만 했다고 봐. 정보 사회에서는 누구나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라면 삭제를 금지해야 해.

— < 보 기 > —

- ㄱ. 갑: 개인에게 자기 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한다.
- ㄴ. 갑: 잊힐 권리 보장이 알 권리 침해로 이어짐을 강조한다.
- ㄷ. 을: 사생활 보호가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 ㄹ. 갑, 을: 자기 정보에 대한 배타적 관리권이 절대적임을 강조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7.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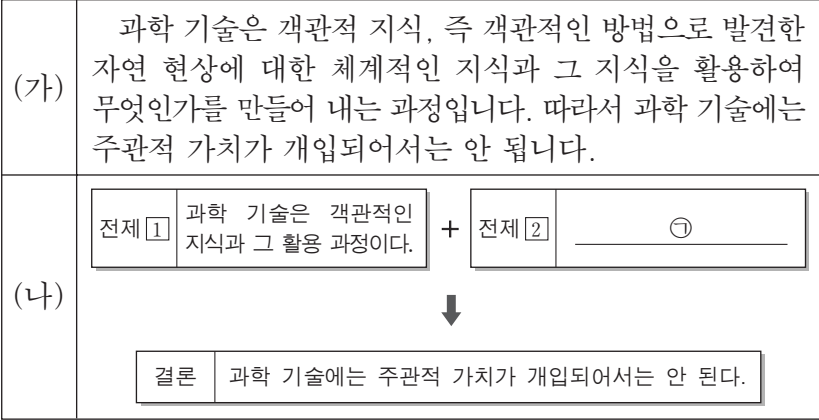


— < 보 기 > —

- ㄱ. A: 인간이 아닌 동물도 권리를 지닐 수 있는가?
- ㄴ. B: 자연 안의 어떠한 존재도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는가?
- ㄷ. C: 인간만이 도덕적 의무를 실천할 능력을 소유하는가?
- ㄹ. D: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이해하여 자연을 지배해야 하는가?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8. (가)의 주장을 (나) 그림으로 나타낼 때, ㉠에 대한 반론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과학 기술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평가되어야 한다.
- ② 모든 지식은 활용의 맥락에서 주관적 도덕 판단을 요구한다.
- ③ 과학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는 별개의 독립된 영역에 속한다.
- ④ 모든 지식은 객관적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인식론적 대상이다.
- ⑤ 객관적 지식의 활용은 그 목적 설정을 위해 가치 판단을 배제해야 한다.

9. 다음 가상 편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에게
 요즘 언론에서 가정 내의 폭력에 관한 기사를 쉽게 볼 수 있네.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관계는 부자자효(父慈子孝)의 정신을 통해 강화될 수 있다네. 사람이 개와 말을 기를 적에도 모두 음식으로 길러 주는데, 만약 부모를 봉양만 하고 공경함이 없으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처럼 효도는 봉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敬]이 바탕이 되어야 하네. 자애의 경우에는 부모가 자녀를 위한 마음만으로 억지로 이끌려고 해서는 안 되네. 힘으로는 도(道)로 이끌 수 없으니, 내가 선택하고자 하면 상대방도 선택하지 않겠는가. …(후략)…

- ① 효의 정신적인 측면보다 물질적인 측면이 더 중요하다.
- ②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은 강제로라도 교정해 주어야 한다.
- ③ 부모의 역할을 다하면서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한다.
- ④ 자녀를 위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행위는 모두 자애에 속한다.
- ⑤ 부모의 경제적 보살핌을 받기 위해 자녀는 효도를 행해야 한다.

10. 갑, 을 사상가들 중 적어도 한 사람이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모든 집단은 사회적 조화를 이룰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은 합리성이나 선의지의 성장에 의해 점진적으로 견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을: 어떤 집단적 힘이 약자를 착취할 때, 대항 세력이 견제하지 않는 한 그 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집단 간의 관계는 지극히 정치적이므로 항상 윤리적인 것은 아니다.

— < 보 기 > —

- ㄱ. 사회 갈등의 원인이 개인의 이기심에 있는가?
- ㄴ. 사회 갈등의 해법이 권력 불균형 유지에 있는가?
- ㄷ.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선의지의 함양이 필요한가?
- ㄹ. 사회 정의의 실현을 위해 강제력의 사용이 필요한가?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1. (가)를 주장한 사상가가 (나)의 상황 S1~S4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가)

차등의 원칙은 ‘그의 ~에 따라서 각자에게’ 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定型)적인 정의의 원칙이다.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나)

S1: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화 g를 취득했다.

↓

S2: 을은 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

S3: 병은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

↓

S4: 정은 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

* 화살표(↓)는 상황(S)의 경과를 나타낸다.

- ① S1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② S1이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라면 S2도 그렇다.
 ③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
 ④ S4는 S3과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
 ⑤ S4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12.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형벌의 선한 결과가 형벌 자체의 악보다 크다면 형벌을 부과해야 합니다. 사형과 같은 형벌의 남용은 인간을 개선시키지 못합니다. 사형보다는 종신 노역형이 범죄 억제력이 큼니다.

형벌은 범죄자가 처벌받아야 할 행위를 의욕했기 때문에 가해져야 합니다. 사형은 살인에 상응하는 보복을 위한 것으로서, 인간성을 해치는 죄책감으로부터 사형수를 해방시켜 줍니다.

갑

을

- ① 사형은 유용성의 원리가 아니라 인간 존중의 이념에 위배되는가?
 ② 형벌의 목적은 응분의 보복이 아니라 범죄의 예방에 있는가?
 ③ 사형제는 보다 효과적인 형벌 제도가 있으므로 폐지되어야 하는가?
 ④ 범죄자는 응분의 보복을 의욕했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가?
 ⑤ 사형제는 동등성의 원리에 따라 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인가?

13. (가)의 입장에 비해 (나)의 입장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은 또 다른 차별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기회의 평등에서 예외를 인정하거나, 과거의 불평등을 잘못이 없는 후대에게 책임지우는 것은 부당하다.

(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 우대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오랫동안 부당한 차별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에게 응분의 보상을 하고, 사회 전체의 평화와 행복을 증진하는 등 여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 X: 평등의 실질적인 측면보다 형식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정도

• Y: 과거의 차별에 대한 사회·경제적 보상을 중시하는 정도

• Z: 차별을 줄이기 위해 인종, 종교, 성별 등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정도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은 향락과 낭비를 막는다. 이러한 금욕으로 인해 재화의 획득이 구원의 증표로 정당화되었다. 금욕을 바탕으로 한 영리 활동이 근대 기업가의 소명이라면, 노동은 근대 노동자의 소명이다.

을: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한다. 임금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씹씹이를 줄이고 백성들을 사랑해야 한다. 신하는 먼저 맡은 직분을 경건히 수행하고 녹봉은 그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 ① 갑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면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② 갑은 금욕적 태도와 자본주의 정신이 양립 불가능하다고 본다.
 ③ 을은 직업을 통해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④ 을은 각자가 자기의 직분에 충실할 때 공동체가 유지된다고 본다.
 ⑤ 갑, 을은 부의 축적의 궁극적인 정당화 근거를 금욕에서 찾는다.

15.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음식물에 대한 욕망은 자연적이다. 먹고 마시는 욕망을 추구함에 있어서 잘못하는 경우는 주로 지나친 쪽으로 잘못하는 것이다. 사실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먹고 마실 수 없을 때까지 먹고 마시는 것은 양에 있어 자연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람들은 마땅한 것을 넘어 자신의 배를 채우는 사람을 폭식가(暴食家)라고 부른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나칠 정도로 노예적인 사람이다.

- ① 먹는 행위를 통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② 먹는 행위는 인간의 이성에 의해 조절되어야 한다.
 ③ 먹는 행위를 통해 개인적 취향의 차이를 드러내야 한다.
 ④ 먹는 행위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⑤ 먹는 행위는 공동체의 동질감과 연대감 형성에 기여해야 한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법이나 정책은 원초적 입장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시민 불복종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나 제2 원칙 중 공정한 기회 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반에 국한되어야 한다.

을: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길러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선량한 사람조차도 불의의 하수인이 될 상황이라면 그 법을 어겨라. 양심에 따라 그 법에 저항하라.

- ① 갑은 불복종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 ② 갑은 불복종에 따른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본다.
- ③ 을은 양심에 어긋나는 모든 법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 ④ 을은 공동체의 정의감을 불복종 정당화의 최종 근거로 본다.
- ⑤ 갑, 을은 불복종을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합법적 행위로 본다.

17.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간은 낯선 공간 안에 던져진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그 공간에 친숙해지며 그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냄으로써 거주(居住)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집 밖의 세계에서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의 보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양극적 긴장과 관련된 양 측면은 모두 필수적이므로, 거주 공간은 외부 세계에 대해 열릴 수 있는 닫힌의 공간이자 자기 삶의 중심입니다. 이렇듯 인간의 거주는 특정한 장소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며, 안정성을 느낄 수 있는 안주(安住)이어야 합니다.



- ①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자기 세계의 중심이어야 한다.
- ② 인간은 자신의 거주 공간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 ③ 인간의 거주 공간은 집 밖의 세계와는 구분되어야 한다.
- ④ 인간에게 거주 공간은 편안하고 친숙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
- ⑤ 인간의 거주 공간은 외부로 지향하지 않는 닫힌 공간이어야 한다.

18.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폭력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자는 소극적 평화를 목표로 하지만, 후자는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쟁, 테러, 폭행 등 신체에 직접 해를 가하는 직접적·물리적 폭력이 제거된 소극적 평화 상태뿐만 아니라, 억압, 착취 등의 구조적 폭력과 종교와 사상, 언어와 예술, 과학과 법, 대중 매체와 교육의 내부에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까지 모두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또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듯이, 평화는 평화적 수단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

- ① 적극적 평화를 위한 직접적인 폭력 사용은 인정되어야 한다.
- ②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가 간접적인 폭력의 제거보다 중요하다.
- ③ 빈곤, 인권 침해 등으로 인간 삶의 질이 저하되는 상태도 폭력이다.
- ④ 국제 평화 개념은 국가 간에 전쟁이 없는 상태로 국한되어야 한다.
- ⑤ 폭력의 개념은 공인되지 않은 비합법적인 무력의 사용으로 한정된다.

19. (가)의 갑, 을, 병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전 세계 사람들의 이익은 그 사람의 국적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세계 시민으로서 전 지구적 차원의 원조에 동참해야 한다. 을: 우리를 불가침의 개인들로 간주하는 정의로운 국가는 최소 국가뿐이다. 원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근거해야 한다. 병: 만민은 정의롭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 체제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불리한 여건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의 국민들을 도와야 한다.
(나)	

< 보 기 >

- ㄱ. A: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의무 이행이어야 한다.
- ㄴ. B: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기 위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같다.
- ㄷ. C: 원조의 대상은 질서 정연한 빈곤국가까지도 포함해야 한다.
- ㄹ. D: 원조의 최종 목표는 국가 간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20.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예술 세계에서는 어떤 거짓말도 허용된다. 중요한 것은 오차 없는 진실이 아니라 아름다운 거짓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추악한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타락한 사람이다. 아름다운 것에서 아름다운 의미를 발견하는 사람은 교양 있는 사람이다.

을: 최고의 예술은 질서와 사랑을 통해 구현되며, 반항적이고 저급한 피조물을 거룩하게 만든다. 예술의 목적은 인간의 종교를 강화하고, 인간의 윤리적 상태를 완전하게 만드는 데 있다. 예술은 이런 일들을 물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 보 기 >

- ㄱ. 갑은 예술의 본질을 오직 예술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 ㄴ. 을은 예술이 이상과 현실의 분리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
- ㄷ. 을은 도덕적 목적이 예술 작품으로 구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 ㄹ. 갑, 을은 예술이 공동체의 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